

## 김치산업 현황과 최근 동향

박기환, 이계임, 주준형

### 식품제조업 중 김치류 비중은 낮지만, 외적 성장세는 더 높아

- 전체 식품제조업에서 김치류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2019년 2.1%,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2.9%로 미미한 수준임.
  - ▶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은 2016년 1.5%에서 2019년 2.1%로 0.6%p 상승하였으나,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각각 2.9%로 비슷한 수준 유지

[표 1]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종사자 수 및 식품제조업 대비 비중

단위: 개, 명,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사업체 수	식품제조업	57,734 (100.0)	58,653 (100.0)	60,071 (100.0)	60,715 (100.0)	1.7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3,620 (6.3)	3,900 (6.6)	4,396 (7.3)	4,780 (7.9)	9.7
	김치류 제조업	860 (1.5)	970 (1.7)	1,150 (1.9)	1,248 (2.1)	13.2
종사자 수	식품제조업	324,392 (100.0)	327,381 (100.0)	342,089 (100.0)	353,949 (100.0)	2.9
	과일,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	26,745 (8.2)	27,905 (8.5)	29,999 (8.8)	31,416 (8.9)	5.5
	김치류 제조업	9,415 (2.9)	9,445 (2.9)	10,171 (3.0)	10,336 (2.9)	3.2

주1)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김치류 제조업을 분리하여 발표한 것은 2016년부터임.

2) 제조업(1레벨)-식품제조업(2레벨)-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 처리업(3레벨, 4레벨)-김치류 제조업(5레벨)으로 분류되고 있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

- 식품제조업 중 김치류 제조업의 비중은 낮은 상황이나,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의 2016~2019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7%인 반면, 김치류 제조업은 13.2%로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 식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2016년 5만 7,734개에서 2019년 6만 715개로 연평균 1.7% 증가
  - ▶ 그러나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는 같은 기간 860개에서 1,248개로 1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sup>1)</sup>
- 2016~2019년간 식품제조업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9%, 김치류 제조업의 경우 3.2%로 김치류 제조업이 전체 식품제조업보다 증가율이 조금 높음.
  - ▶ 식품제조업의 종사자는 2016년 32만 4,392명에서 2019년 35만 3,949명으로 연평균 2.9%의 증가율
  - ▶ 이중 김치류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같은 기간 9,415명에서 1만 336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3.2%로 전체 식품제조업 대비 0.3%p 높은 편<sup>2)</sup>
-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3.2%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낸 반면, 종사자 수 증가율은 3.2%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영세 사업체가 늘어났기 때문임.
  - ▶ 즉, 종사자 100명 이상의 대규모 김치류 제조업체는 연평균 17.8%의 감소율로 줄었지만, 1~4명의 영세업체는 연평균 20.6%의 증가율로 평균(13.2%)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비중도 2016년 53.1%에서 2019년 64.3%로 증가
-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식품제조업보다 높은 가운데, 10인 이상의 김치류 제조업체의 매출액도 전체 식품제조업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음.
  - ▶ 10인 이상의 식품제조업 매출액은 2011년 61조 6,332억 원에서 2019년 84조 608억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
  - ▶ 10인 이상의 김치류 제조업 매출액은 같은 기간 9,600억 원에서 1조 3,332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4.2%로 전체 식품제조업 대비 소폭(0.2%p) 높은 상황<sup>3)</sup>

표 2. 김치류 제조업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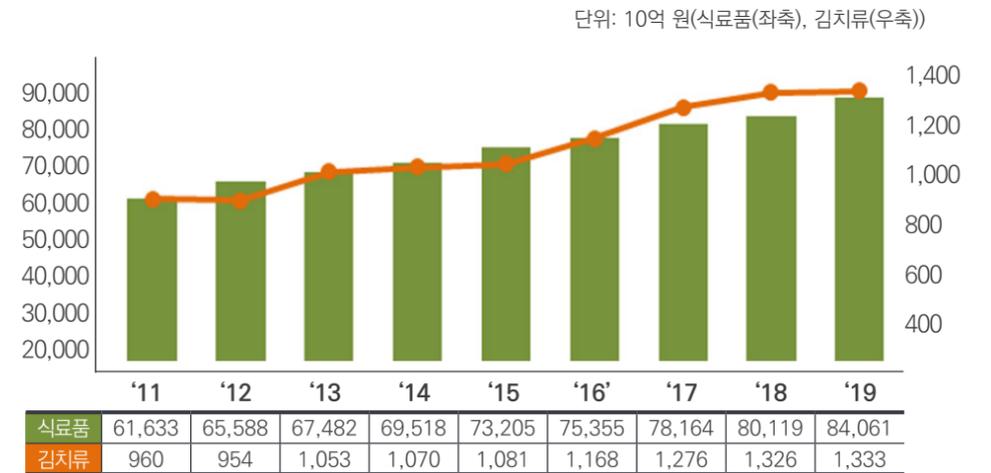
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1~4명	457 (53.1)	558 (57.5)	705 (61.3)	802 (64.3)	20.6
5~9명	172 (20.0)	173 (17.8)	211 (18.3)	209 (16.7)	6.7
10~19명	107 (12.4)	122 (12.6)	108 (9.4)	113 (9.1)	1.8
20~49명	93 (10.8)	85 (8.8)	94 (8.2)	90 (7.2)	-1.1
50명~99명	22 (2.6)	23 (2.4)	25 (2.2)	29 (2.3)	9.6
100명 이상	9 (1.0)	9 (0.9)	7 (0.6)	5 (0.4)	-17.8
계	860 (100.0)	970 (100.0)	1,150 (100.0)	1,248 (100.0)	13.2

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김치류 제조업을 분리하여 발표한 것은 2016년부터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그림 1. 식품 및 김치류 제조업 매출액 추이(10인 이상)



주: 10명 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https://kosis.kr/).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에는 김치 제조업체 수가 943개로 통계청보다 적는데,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 실적을 보고하는 업체 기준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에서는 2019년 기준 김치 제조업체의 종업원 수는 1만 3,534명으로 통계청과 다소 차이가 있음.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자료에 의하면, 김치류(김치와 김치속 합계) 판매액은 2010년 8,034억 원에서 2015년 1조 296억 원, 2019년 1조 2,556억 원, 2020년 1조 3,191억 원임.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의 김치류 매출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김치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는 패턴은 동일함.

### 김치류 제조업체의 매출액 성장세에도 많은 비용 투입으로 이익을 높지 않아

- 전체 식품제조업의 경우(10인 이상) 매출액은 10억~50억 원 미만이 4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이 50억~100억 원 미만, 100억~300억 원 미만 등의 순임
  - ▶ 매출액 10억~50억 원 미만의 비중은 2011년 42.4%에서 2015년 45.4%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43.8%로 감소세 전환
  - ▶ 반면, 50억~100억 원 미만과 100억~300억 원 미만의 비중은 2011년 각각 16.8%, 14.3%에서 2019년 18.3%, 16.4%로 증가
- 10인 이상의 김치류 제조업 매출액은 10억~50억 원 미만의 비중이 6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이 50억~100억 원 미만 등의 순임.

표 3. 김치류 제조업의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 비중 추이(10인 이상)

구분		2011	2015	2017	2018	2019
식품 제조업	5억 원 미만	7.4	5.5	5.9	4.9	4.8
	5억~10억 원 미만	9.8	8.2	7.3	7.2	7.1
	10억~50억 원 미만	42.4	45.4	44.5	43.9	43.8
	50억~100억 원 미만	16.8	17.0	17.8	18.6	18.3
	100억~300억 원 미만	14.3	14.5	15.2	15.8	16.4
	300억~400억 원 미만	1.5	1.8	2.0	2.2	2.0
	400억~1,000억 원 미만	4.6	4.4	4.4	4.3	4.5
	1,000억 원 이상	3.4	3.3	2.9	3.0	3.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김치류 제조업	5억 원 미만	4.8	3.1	3.3	2.1	1.7
	5억~10억 원 미만	11.2	8.1	9.6	7.2	4.8
	10억~50억 원 미만	55.1	61.9	59.4	60.9	61.6
	50억~100억 원 미만	17.1	17.5	15.9	19.1	20.1
	100억~300억 원 미만	9.6	8.5	10.5	9.4	10.0
	300억~400억 원 미만	1.1	0.4	0.4	-	0.4
	400억~1,000억 원 미만	1.1	0.4	0.8	0.9	0.9
	1,000억 원 이상	-	-	-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https://kosis.kr/).

- ▶ 매출액 10억~50억 원 미만의 비중은 2011년 55.1%에서 2019년 61.6%로 증가 경향
- ▶ 5억~10억 원 미만은 같은 기간 11.2%에서 4.8%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50억~100억 원 미만 비중은 17.1%에서 20.1%로 증가세 뚜렷
- 전체 식품제조업의 매출액 규모별 분포는 10억~300억 원 미만이 78.6%의 비중을 차지하지만, 김치류 제조업의 경우 91.7%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김치류 제조업의 규모가 영세할 것으로 판단
  - ▶ 즉, 업체당 식품제조업 매출액은 2019년 기준(10인 이상) 152억 원이며, 김치류 제조업은 58억 원으로 2.6배 높은 수준
- 그러나 업체당 매출액 증가율은 식품제조업 평균이 2011~2019년간 연평균 0.2%의 증가율에 그친 반면, 김치류 제조업은 1.6%로 업체의 매출액 성장세는 김치류가 더 높은 상황
  - ▶ 업체당 실질 매출액으로 산정한 결과로도 식품제조업은 연평균 1.0% 감소율을 나타냈지만, 김치류 제조업은 0.4%의 증가율로 분석
  - ▶ 이는 김치류 제조업체 가운데 매출액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가 식품제조업 평균보다 높음을 의미

표 4. 식품제조업 및 김치류 제조업의 업체당 매출액 추이(10인 이상)

구분		2011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명목	식품 제조업	15,003	15,019	15,029	14,974	14,989	15,209	0.2
	김치류 제조업	5,134	4,849	4,951	5,341	5,642	5,822	1.6
실질	식품 제조업	16,139	15,019	15,023	14,782	14,732	14,864	-1.0
	김치류 제조업	5,523	4,849	4,949	5,272	5,545	5,690	0.4

주 1) 업체당 매출액은 총매출액을 사업체 수로 나누어 산정한 값임.  
 2) 실질 매출액은 식품 생산자물가지수(2015=100)로 디플레이트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및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4) 식품제조업(10인 이상)의 생산액 대비 총비용 비중은 2011년 90.1%, 2016년 89.6%, 2019년 90.6% 등 대체로 90%대 수준이나, 김치류 제조업체보다는 1~3%p 낮은 편임.

5) 식품제조업(10인 이상)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6년 10.3%에서 2019년 9.1%로 떨어졌지만, 김치류 제조업보다는 높은 9~13% 내외로 나타남.

- 10인 이상 김치류 제조업체의 생산액은 2011년 9,665억 원에서 2019년 1조 3,336억 원으로 38.2% 늘었으며, 총비용은 같은 기간 9001억 원에서 1조 2,293억 원으로 36.5% 증가하였음
  - ▶ 김치류 제조업체의 원재료비는 2011년 5,654억 원에서 2019년 7,312억 원으로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기록
  - ▶ 총비용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62.8%에서 2017년 57.6%로 5.2%p 하락하였으나, 2019년 59.5%로 다시 증가세로 전환
  - ▶ 김치류 제조업체의 생산액 대비 총비용의 비중은 2011년 93.2%에서 2016년 89.5%로 낮아졌으나, 2019년 92.0% 등 이후 90% 이상을 유지<sup>4)</sup>
- 출하액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2011년 591억 원에서 2016년 1,145억 원으로 1.9배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1,039억 원으로 감소하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임.
  - ▶ 업체당 영업이익은 2016년 4억 8,500만 원에서 2019년 4억 5,40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2017년 이후부터 증가세로 변화
  - ▶ 김치류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투입되는 비용이 많아 10% 미만으로 높지 않은 편이며, 2019년 기준 7.8% 수준<sup>5)</sup>

표 5. 김치류 제조업의 경영 현황 추이(10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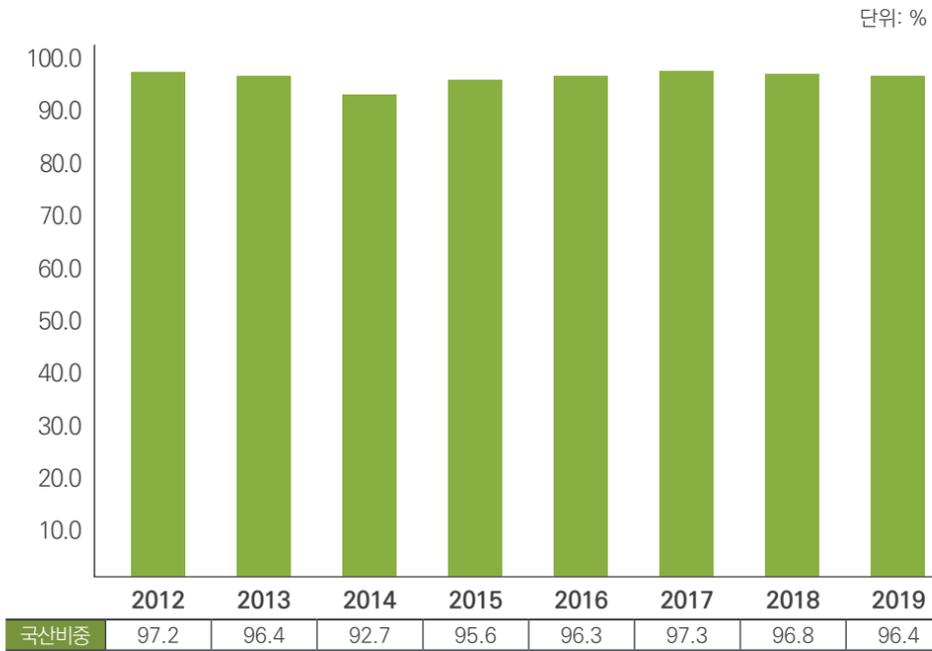
구분	2011	2013	2016	2017	2018	2019	
출하액	960,027	1,053,434	1,168,437	1,276,495	1,325,910	1,333,181	
생산액	966,524	1,059,059	1,177,063	1,277,975	1,331,133	1,335,806	
총비용	원재료비	565,426 (62.8)	574,608 (59.1)	624,238 (59.2)	696,212 (57.6)	724,598 (58.7)	731,220 (59.5)
	업체당 원재료비	3,024	2,698	2,645	2,913	3,083	3,193
	생산액 대비 비용 비중	93.2	91.8	89.5	94.6	92.7	92.0
영업이익	59,120	81,216	114,531	67,530	91,807	103,873	
업체당 영업이익	316	381	485	283	391	454	
이익률	6.2	7.7	9.8	5.3	6.9	7.8	

주 1) 업체당 원재료비는 총원재료비를 사업체 수로 나누어 산정한 값임.  
 2) 생산액 대비 비용 비중은 생산액에서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임.  
 3) 영업이익은 출하액에서 총비용을 제외하여 산출함.  
 4) 이익률은 출하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임.  
 5) ( ) 내는 총비용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https://kosis.kr/).

- 김치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마늘, 양파, 파, 생강, 천일염, 젓갈 등 대부분의 원재료가 농수산물이며, 특히 원재료의 국산 이용률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아 원재료비가 국내 농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받음.

- ▶ 김치류 제조업체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은 2012년 97.2%, 2015년 95.6%, 2019년 96.4% 등 대부분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편
- ▶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높는데, 국내 농수산물은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 등락하고 있어 김치류 제조업체의 업체당 원재료비는 감소하다가 최근 증가하는 등의 증감이 다소 반복되는 경향

그림 2. 김치류 제조업체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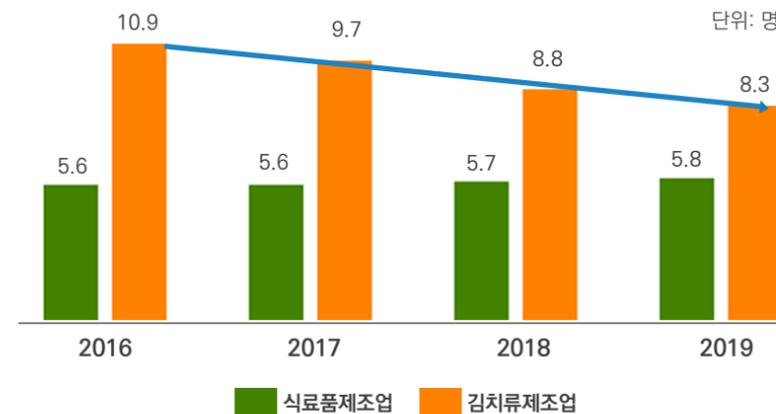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 각 연도.

### 김치류 제조업체의 업체당 종사자 수 감소하나, 상용종사자 중심의 고용 구조

- 김치류 제조업체의 업체당 종사자 수는 2019년 8.3명으로 식료품제조업 평균 5.8명보다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그러나 식료품제조업체의 업체당 종사자 수는 2016년 5.6명에서 2019년 5.8명으로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김치류 제조업체는 같은 기간 10.9명에서 8.3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
  - ▶ 이는 김치류 제조업체의 사업체 수가 늘어도 소규모 업체 중심이며, 이들 업체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고용을 줄이기 때문으로 판단
- 김치류 제조업체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증가한 반면, 상용종사자 비중은 소폭 감소함에 따라 고용을 줄이면서 일부 가족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으로 추론됨.

- ▶ 김치류 제조업체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는 2016년 8.7%에서 2019년 11.7%로 3.0%p 상승한 데 비해 상용종사자는 같은 기간 78.4%에서 76.5%로 1.9%p 하락
- ▶ 김치류 제조업체의 상용종사자 비중은 최근 소폭 감소세이기는 하나, 식료품제조업 전체 평균에 비해서는 9~10%p 높아 김치류 제조업체의 고용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판단

그림 3. 김치류 제조업체의 업체당 종사자 수 추이



주: 업체당 종사자 수는 총종사자 수를 사업체 수로 나누어 산정한 값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표 6. 김치류 제조업체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식료품 제조업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23.9	23.0	21.8	21.0
	상용종사자	65.5	65.8	67.0	68.0
	임시 및 일용근로자	9.8	10.7	10.5	10.1
	기타 종사자	0.8	0.6	0.7	0.9
	계	100.0	100.0	100.0	100.0
김치류 제조업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8.7	9.9	11.1	11.7
	상용종사자	78.4	78.7	78.5	76.5
	임시 및 일용근로자	12.8	11.3	10.3	11.4
	기타 종사자	0.2	0.1	0.2	0.4
	계	100.0	100.0	100.0	100.0

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서 김치류 제조업을 분리하여 발표한 것은 2016년부터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s://kosis.kr/)를 기초로 저자 산정.

### 최근의 대내외 환경 변화 김치류 제조업체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듯

-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김치 섭취량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1인 가구 증가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선호 변화 등으로 판매용 상품김치 지출액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임.
  - ▶ 김치의 1인 1일 섭취량은 2010년 108.1g이었으나, 2015년에는 95.2g, 2018년 89.2g, 2019년에는 86.4g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sup>6)</sup>
  - ▶ 반면, 가구당 월평균 김치 지출액은 2000년 1,006원에서 2010년 1,790원, 2020년에는 3,357원으로 2000~2020년간 연평균 6.2%의 높은 증가율 기록
  - ▶ 2021년 1~2분기의 가구당 김치 지출액도 전년 분기 대비 1,000원 이상 높은 수준 지속
  - ▶ 이에 따라 통계청 기준 김치업체 매출액은 2011년 9,600억 원에서 2019년 1조 3,332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으로도 김치업체 판매액은 2011년 8,985억 원에서 2020년 1조 3,413억 원으로 큰 폭 증가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민영양통계」(https://www.khidi.or.kr/nutristat)에서 김치의 종류별로 합산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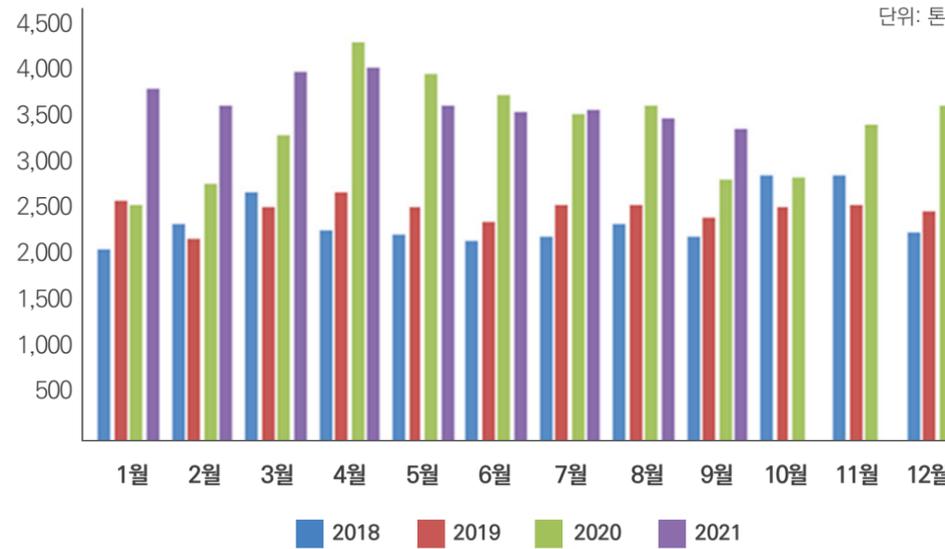
표 7. 가구당 월평균 김치 지출액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20	2021년	
						1분기	2분기
김치 지출액	1,006	1,447	1,790	1,484	3,357	2,043	3,105

단위: 원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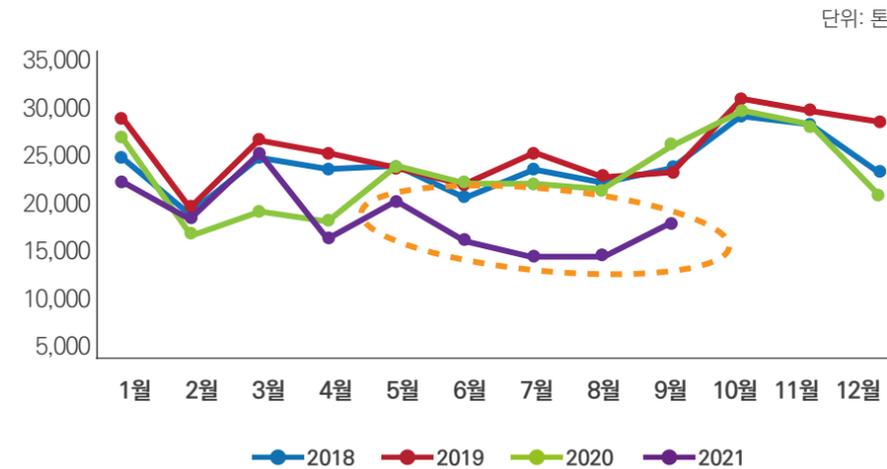
- 김치 수출량은 2010~2019년간 별다른 신장 없이 3만 톤 미만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김치의 면역력 기능성 등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김치의 2020년 수출량은 2019년 대비 34.2%, 2018년보다는 41.0%나 증가하였으며, 2021년 1~9월 누적 수출량은 2019년 동기 대비 46.1%, 2018년 동기보다는 59.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신장세
- 김치는 저가의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증하면서 그동안 수입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식업체 수요가 줄면서 2020년부터 수입량은 감소로 전환되었음.
  - ▶ 김치 수입량은 2005년 11만 1천 톤 정도에서 2015년 22만 4천 톤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상 최대인 30만 6천 톤이 수입되는 등 큰 폭으로 증가
  - ▶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로 선적이 여의치 않았던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식업체의 수요가 줄면서 2020년 김치 수입량은 2019년 대비 8.1% 감소
  - ▶ 2021년에는 중국의 절임배추 알몸 제조 영상 등이 알려지면서 전년보다 다소 늘었던 김치 수입량이 4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21년 1~9월 누적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3%, 2019년 동기보다 19.0%나 감소

그림 4. 코로나19 발생 전후 김치 수출량 변화



주: 2021년은 1~9월 실적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그림 5. 코로나19 발생 전후 김치 수입량 변화



주: 2021년은 1~9월 실적임.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

요약 및 시사점

- 김치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 해외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전통식품이며, 김장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 김치의 중요성에도 김치류 제조업이 전체 식료품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실정
  - ▶ 그렇지만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 10인 이상의 매출액 증가율은 식료품제조업보다 높아 김치류 제조업의 외적 성장세는 최근 들어 확대되는 추세
- 김치류 제조업의 매출액은 10억~300억 원 미만이 대부분인 91.7%로 식료품제조업 평균 78.6%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함. 그러나 업체당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2011~2019년간)은 식료품제조업이 0.2%인데 비해 김치류 제조업체는 1.6%로 나타나 업체당 매출액 증가세는 김치류가 더 높음.
  - ▶ 다만, 김치류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16~2019년간 연평균 13.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지만, 10인 이상의 사업체 수는 오히려 1.0%의 감소율을 나타내 소규모 영세 업체가 김치류 제조업에 신규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
- 김치류 제조업체의 영업이익률은 2019년 7.8%에 그치는 등 10% 미만으로 높지 않은 편이며, 업체당 종사자 수는 2016년 10.9명에서 2019년 8.3명으로 감소하였음.
  - ▶ 그러나 김치류 제조업체 종사자 가운데 상용종사자 비중은 식료품제조업 평균에 비해 9~10%p 높아 고용의 질적 조건은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파악

7) 일본 및 대만 소비자 조사 결과,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으로 김치를 선택한 소비자가 일본 84.4%, 대만은 77.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황윤재·박기환·박시현,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위한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20).

- 이와 같이 김치류 제조업체의 경우 외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낮은 영업이익률과 식료품제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황 등도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내외 여건은 김치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도 1인 가구 증가와 소비자의 편의성 추구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김치를 제조하기보다 상품김치를 구매하는 비중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치업체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sup>8)</sup>
  - ▶ 코로나19 발생 이후 김치의 면역력 강화 기능 등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 김치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 ▶ 아울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더욱 강화되겠지만, 앞으로 워드 코리아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 그동안 침체했던 외식 수요가 증가하여 현재와 같은 김치 수입량 감소세는 제한적일 전망
- 따라서 향후 김치산업이 대표적인 전통식품으로서 더욱 위치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김치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모처럼 호기를 맞이한 김치 수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맛과 품질의 일관성, 유통기한 연장, 기능성 향상 등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 또한,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국산 김치를 제조하고, 자동화 공정 개발·보급, 원재료 계약재배 확대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 전략 마련 필요

8)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0.3%에서 2025년 32.3%, 2030년 33.7%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통계청 장래가구추계를 기초로 저자 산정).

### 저자정보

- ▶ 박기환 선임연구원(061-820-2331), kihwan@krei.re.kr
- ▶ 이계임 선임연구원(061-820-2326), lkilki@krei.re.kr
- ▶ 주준형 연구원 (061-820-2016), jhjoo@krei.re.kr